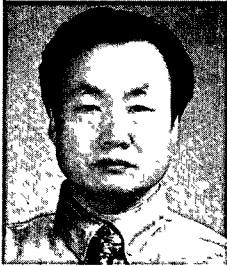


五運六氣學의 批判

李 學 範



用藥法에 있어서 대체로 古方과 後世方이 있고 더 보탠다면 四象學에 의한 用藥과 五運六氣學에 의한 用藥法을 들 수 있다.

李濟馬先生의 四象學은 근자에 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모든 이에게 관심사가 되어 그 활용도나 상식이 널리 보급되고 생활의학화 되었다

오늘날 四象醫學이 급부상하면서 널리 보급되는데 비해 五運六氣學은 世人들이나 學人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東洋醫學은 宇宙原理인 東洋哲學의 한 분야로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현대의 물질 문명이 최첨단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과거의 문물이 쇠락해버리고 쓸모없이 되 버렸지만 오직 韓醫學만이 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각광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五運六氣學이야말로 東洋哲學에 기초를 두었고 命理學을 모르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도 홀대시 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五運六氣學의 原理를 분석해 보자.

五運六氣學은 환자의 출생년월일시로 四柱에 기둥과 人學을 뽑아놓고 그 출생일로부터 소급해 올라가 入胎일시를 산정하고 그 運氣를 추산하여 어떤 장부 어떤 病의 유무를 파악해서 그 합당한 처방약을 쓰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四柱 命理學이 迷信인가 아닌가 하는 것부터 파악해야 그 학문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命理學의 기원은 黃河文明의 太初 인류가 文字를 쓰기 시작한 후로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 十干을 하늘로 상징케하고 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의 十二支는 땅을 상징케 하여 甲子 乙丑... 順으로 六十甲子가 성립되었고 宋時代에 와서 徐公升에 의해 淵海子平이 완성되면서 命理學이 체계를 이루었으며, 오늘날 推命 四柱學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寶鑑이 된 것이다

四柱推命學을 迷信으로만 따돌릴 수 없는 이유는 그 학문이 氣象學이라는데에 있다. 1년 12달에 24절후를 놓고 매 절후마다 파종하여 성장케하고 마침내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농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의 출생, 성장, 쇠퇴, 죽음의 경로를 밝게 되고 지구상의 인간들 역시도 태양과 달의 기상변화에 의해 생로병사의 과정을 벗어날 수가 없이 그 영향력을 받고 있고 現代文明時代에도 밝혀지듯이 각 개인의 특정한 바이오리듬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파악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水氣가 왕성한 계절에 태어난 사람은 冷한 氣運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溫暖한 봄기운이나 여름의 火氣를 좋아할 것이고 반대로 여름에 태어난 火氣가 왕성한 사람이라면 서늘한 가을이나 冷한 겨울의 氣運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더 깊이 연구한다면 이보다 더 복잡한 理論이 성립할 것이나 어쨌든 인간의 生老病死의 삶이 우리가 그 氣候변화의 영향을 얼마만치 받는가를 여하히 推察하여 오판의 여지를 최소화하는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고서라도 어쩔수 없이 그 영향권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天機漏洩과는 다르다. 어디까지나 推論이면서 경향이므로 推命學이 된 것이다.

인간의 삶이 宿命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려 힘을 소모하는 것은 愚昧에서 탈피치 못한 연유일 뿐 확실한 대답은 변화무쌍하게 바뀌어가는 易으로서 推命인 것이다. 이라서 四柱學이 迷信이 아닌 氣象學으로 우리 인간의 생사문제나 健康, 심지어는 정서문제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정했을 때 五運六氣學은 타당한 학문이면서 用藥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五運六氣學이 절후를 따져 장부의 성쇠여부에 의해 병증을 잡고 처방을 선정해 놓은 것이기는 하나 東洋醫學의 무수한 藥性이나 수만가지의 처방학이 각고의 노력이나 이해도 없이 入胎干支法 하나로 用藥한다는 것은 너무도 안일할 뿐 아니라 획일적이면 서 환자의 그때그때 상황과는 무관하게 항상 한가지 처방 즉 甲子年 一運一氣運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병증의 정해진 처방만으로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五運六氣學이 푸대접 받는 이유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기는 이 五運六氣學을 잘 이용해서 명성을 얻고 성업을 한 사람도 있기는 하나 그것은 예외인 경우로 밖에 볼 수 없다.

五運六氣學의 用藥法만을 신봉한다면 광범위하고 난해한 한의학 공부를 할 이유조차도 없어진다. 약간의 干支술만 공부한다면 누구나가 다 한정된 범위안에 기성처

■ 五運六氣學의 批判

방만을 用藥할 수 있기 때문이다. 針法에도 靈龜針이란 針術은 針穴 8개(內關, 外關, 列缺, 後溪, 公孫, 臨泣, 照海, 神脈)로 환자가 내방한 시각의 干支와 日干支의 수를 계산하여 諸葛公明의 奇問遁甲法(生門, 死門, 休門, 開門, 驚門, 景門, 傷門, 社門)을 이용한 穴을 찾아 시술하는 방법으로 결국 五行干支術에 기초를 두고 알고보면 土亭 秘決보는 정도의 능력으로 이해가 가능하므로 五運六氣學과 유사한 맥락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 역시도 靈龜針法만 고집한다면 12經絡과 奇經八脈으로 된 복잡한 365 穴을 공부할 이유가 없어진다

五運六氣術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일평생을 그 한가지 처방만으로 用藥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으므로 그 학문 그대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後學들에게 새롭고 더 높은 차원의 학문으로 승화시켜 연구한다면 명실공히 괄목할만한 이론체계가 성립되리라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四柱推命學부터 통달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 대충 설명하자면 책력을 보고 각인의 생년월일시에 의해 四柱기둥과 八字를 뽑아 놓고 보면 대체로 風寒濕暑燥火의 氣運이 고르지 못하고 편추되어 있는데 비해 五行의 六氣가 고르고 陰陽和平한 陰陽和平人의 四柱야말로 健康은 물론이고 모든 운(官運, 財運, 子息運, 父母運)이 다 좋을 수 밖에 없다

吉非를 타고 난 運命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만은 대개 五行이나 六氣가 太過하거나 不服하므로 用藥法대로 太過하고 實한즉 瀉해야 하고 不服하고 虛한즉 補해야 할 것이고 역시 冷濕한 氣運이 많으면 溫暖케 하는 것이 천고의 법칙이다. 四柱를 풀어보면 用神이라고 해서 四柱內에 氣運을 고루 和平케하는 핵심적 五行인데 抑扶, 病弱, 調候, 專旺, 通關의 5가지 用神이 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抑扶는 四柱의 日主가 強하면 弱하게 해주고 弱하면 強하게 해주는게 用神이고, 病弱은 四柱의 日氣運을 害치는 五行은 病이고 반대로 扶助해주는 藥이 用神이다

調候는 전체 四柱의 五行이 寒濕之氣로 구성되었다면 溫暖케 하고 溫暖之氣는 寒濕으로 中和시키는 것이 用神이다. 專旺은 너무 한쪽의 氣運으로만 편추되었을 때 역행할 수 없으므로 그 氣運을 따라가는 用神으로서 화력이 강한 용광로에 약간의 물을 부어 도리어 화력을 더욱 성나게 하지 않고 그 氣運을 따라 順行하는 이치이다.

通關은 寒暖燥濕의 氣運을 막상막하의 세력으로 쟁투할 때 그 세력을 화해케 하는 五行이 用神이다.

이상과 같이 健康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用神의 善惡의 判別과 十二運星중 健康運

으로 보는 食神의 五行여부를 推察하여 用藥한다면 종래의 五運六氣學을 능가하는 學問이 성립될 것이라 믿는다 여러가지 학설이 있을 수 있으나 健康運을 상징하는 食神의 善惡여부와 抑扶法으로 四柱 生日을 기준으로해서 月令(출생달)의 氣運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여타 干支의 여부도 살펴서 風寒濕暑燥火의 六氣변화와 五行用神의 強弱과 虛實을 구별하여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가령 木氣가 太旺한 四柱라면 肝硬化, 肝臟肥大, 脂方肝, 肝腫瘍 등의 질병을 앓을 수 있는 肝實者이므로 太旺한 木氣를 泄하는 草龍膽, 紫胡를 쓰고 火氣가 旺盛한 四柱로서 高血壓, 俠心症, 心筋梗塞 등의 순환기질환 환자에게는 黃連 등으로 瀉心火하고 土氣가 旺盛한 脾實者인 경우 糖尿病, 肥滿症, 巨食症, 急慢性 胃疾患의 경우 石膏로서 瀉胃火하고 金氣가 旺盛하여 喘息, 咳嗽, 氣管支 카다르 등 증이 있는 肺實者는 黃芩으로 瀉肺火하고 水氣가 太旺하여 水腫 急慢性 腎臟炎 膀胱炎 등의 병증이 유한자는 黃栢 등으로 瀉腎火해야 할 것이다

그 반대로 五行의 氣運이 不服하거나 太弱할 때는 補해야 함으로 설명은 생략한다. 다시말해서 四柱의 氣運의 太旺太弱 여부에 따라 虛實을 분별하여 用藥하거나 더 깊이 연구하여 調候, 通關, 專旺, 病弱에 의하여 用神을 推察하고 健康運은 食神의 동태를 살펴서 剋害여부를 판단해서 剋害되는 장기의 病이 생길 때 그 病을 除去해주는 藥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에 四柱의 風寒濕暑燥火의 六氣가 고르지 못하여 太過不服해서 발병하므로 그 邪氣를 除去하고 正氣를 길러 주는 것은 四診(聞診, 望診, 問診, 切診)을 해서 臨床八綱에(陰陽虛實, 寒熱表裏) 의해 用藥하는 것과 크게 다를바 없다 四診에 의해 臨床八綱法으로 치료함에 있어서 100%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듯이 六氣의 邪氣와 그에 따른 臟腑의 虛實에 의해 用藥하는 것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것은 각기 醫者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陰陽五行術은 易이다 그에따른 학문 역시도 易일 수밖에 없다 물론 誤診을 범한 오류자체를 易이란 말은 아니다 다만 일정하게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내재된 운명을 암시하는 것이 四柱란 말이요, 五運六氣란 말이다 당하지 않고서는 내재된 미래를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없다. 그러한 天機를 다 안다면 죽을(늙어 죽는 것을 제외하고) 사람이 없을 것이고, 부자가 되지 않을 사람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무도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종래엔 삶의 의욕조차도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미래적 경향을 추단하며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이면서 최선을 다해 삶을 이어

■ 五運六氣學의 批判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정화, 사실화된 五運六氣學의 用藥法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외면시 당해왔고 발전의 여지조차도 없지 않았을까?

이제는 한차원 높여 易으로서의 五運六氣學을 새롭게 연구하여 보급한다면 비단 四象醫學 뿐아니라 기타 다른 학문 못지않게 각광을 받으리라고 단언한다

끝으로 이해를 돕기위해 본인의 四柱와 丙子의 四柱를 예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癸(음수)	戊(양토)	癸(음수)	甲(양목)
未(음토)	午(양화)	卯(음목)	寅(양목)
년	월	일	시

日主 癸(水)가 四柱의 주인인데 日主를 도와주는 金장부가 없으므로 肺 大腸이 虛하고 시간이 甲(木)과 寅(木)과 日支의 卯(木) 3개의 氣運이 過多함으로 木氣太旺하다. 木이 月支 午(火)를 生助함으로 四柱 전체에 水가 심하게 마르고 燥하고 熱하다 그러므로 寒濕之氣가 와서 조화시켜야 한다

四象體質은 太陰人이다. 평소 藥을 써보면 人蔘 半夏 附子 生薑같은 熱藥은 받지 않는다. 평생 不必要한 藥들이다. 부족한 水氣를 도우는 四六湯이나 肺氣를 도우는 淸上補下丸같은 처방이나 山藥 蓮肉 天門冬 등의 平한 藥들이 잘 받는다. 肝實을 瀉하는 草龍膽 柴胡같은 약들도 좋다.

丁(음화)	癸(음수)	乙(음목)	庚(양금)
亥(음수)	卯(음목)	未(음토)	辰(양토)
년	월	일	시

丙子의 四柱로서 日主 乙(木)일에 태어났고 음력 2월생이니까 木이 강한데 年支의 水氣가 木을 生助해서 더욱 강해지고 月干의 癸(水)가 역시 木氣를 도우고 日支 未(土)는 亥卯未 三合해서 木局이 되므로 木氣가 太旺한다. 마침 年干에 丁(火)가 있어서 太旺한 木氣를 泄해주므로 用神이면서 丁(火)는 心臟을 뜻한다.

月天干 癸(水)는 丁(火)를 剋害하고 있다 癸(水)가 病이면 丁(火)는 藥이다 丁(火)가 癸(水)의 剋害를 받으므로 心臟이 弱함을 알 수 있다

體質은 少陰人이다 평소 人蔘 附子 生干 黃芪 四物 등 補氣補血하는 熱藥들이 잘 받고 黃連解毒湯이나 防風通聖散같은 冷한 처방약은 절대 금한다

어느정도 四柱學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해가 가리라 믿는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337-3 德仁堂韓藥房 ☎ 053-555-7500)